문화

거지같은 청춘, 하지만 위로받지 않을 권리

최상진 교수, 청춘위한 책 출간

방누리 기자 nurib423@khu.ac.kr

#. "우리학교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늙은이." 하얗게 머리가 세고 내후년에 정년퇴임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의 웃음은 여전히 청춘처럼 맑다. 그는 바로 국문과의 영원한 '오빠'이자 '형' 최상진 교수(국어국문학)다. 최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근 3년간 '이런 거지같은 청춘'이란 제목으로 우리학교 신문방송국 웹페이지 '미디어센터'에 칼럼을 연재해왔다. 그리고 올해 11월, 그의 이야기들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 청춘의 바로 옆에서 부대끼며 고민하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 교수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은 걸핏하면 휴교령이 내리고 수시로 군 병력이 주둔하던, 독재 치하의 70년대였다. '청춘은 있었지만 청춘은 없었다'던 뼈아픈 그의 청년시절은 늘 그에게 가슴 아프게 남았다. 그의 칼럼 제목인 '이런 거지같은 청춘'은 그가 지낸 시절의 거지같았던 청춘을 나타낸다. 그는 "학생들에게 시대적인 아픔을 물려줄 순 없다"며 "그래서 학생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내며 잘해주려고, '청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의 노력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제자들의 연애사와 집안 사정까지 두루 꿰고 있을 정도로 제자들과의 관계가 깊으며 2012년 말에는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통해 주어지는 '베스트 티처' 상을 받기도 했다. 그에게 비결을 묻자 "호주머니가 열려있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다. 허허허"라며 천진하게 답했다.

"내 64년 인생 중 30년은 청춘으로서 배워왔고 나머지 30 년은 청춘을 가르치며 살아왔어요. 청춘들 덕분에 먹고 살았으니 청춘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지. 그래서 내 호주머니는 항상 청춘들에게 열려있어 학생들과 술도 마시고 밥도 잘 사주는 것이죠. '먼저 다가가는 것', 이게 비결이랄까."

그래서 그는 상담할 때도 7~8명씩 묶어 먼저 술을 마시러 간다고 한다. 서먹서먹한 감정을 없애버린 뒤에, 교감을 나눠 서로의 마음을 연 뒤에 시작하는 상담이 진정한 상담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과거에 학생지원처장을 맡은 것 또한 학생들과 많이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청춘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소통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왔다. 누구보다도 청춘을 먼저 생각해 오던 그도 중단된 연재를 다시 시작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정색을 한다. 2014년 4월 16일, 수백 명의 새싹 청춘이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그는 연재를 중단했다고 한다. "내가 명색이 교육잔데 어린 아이들을 바다에 넣고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더 쓰고 싶었지만 도저히 글이 안 나오더라"고 연신 할 말이 없었다고 되뇌었다. 참으로 먹먹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청춘들이 저 세상으로 내몰리는 우리 사회를 향해 소리친다. "뻔뻔하고 허접한 엘리트 비청춘들이 사회 조직을 이끌고 있는 이상, 청춘 레퀴엠은 계속 들릴 수 밖에 없다. 청춘이 없는 미래는 죽은 미래다. 청춘들이여, 비청춘이 설계해 놓은 미래에 우롱당하지 말거라"

'청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려고 노력

최 교수의 칼럼은 항상 긍정적인 댓글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칼럼인 '5포 청춘'(책에 실린 제목은 '다 포기하지마')은 예외였다. 이 칼럼은 연애, 결혼, 출산, 주택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기한 청춘을 일컫는 5포 청춘이라는 신조어를 씁쓸하게 바라보며 청춘들에게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를 보고 어떤 이들은 '말이 참 쉽다',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위해 만들어 놓은 사회에서 청춘과 비기득권보고 행복하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다', '이 시대의 청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패배주의에 젖어 있지는 않다', '잘못된 사회구조를 고칠 생각은 안하고 여전히 젊은이의 태도 문제로 몰아가는 어르신의 말씀이 참 불편하다'는 등 댓글들이 비판의 차원을 넘어 비난으로 보일 정도로 보일 만큼 격하게 치달았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읽히고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겠지만 날선 댓글에 적잖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법도 한 일이었다. 당시 상처받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원래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며 "해당 칼럼을 삭제하지 말고 모든 걸 그대로 두라고 운영자 측에 전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아마 앞의 글을 다 읽지 않아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며 "분절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칼럼과는 달리, 이번에 출간한 책은 그동안 연재해 온 칼럼을 조각조각이 아닌 통합된 흐름 속에서 전체적인 의도를 감안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항상 청춘들이 개혁과 혁명의 중심에 있어왔고, 지금의 청춘들도 그래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춘을 위한 책이 다양한 요즘 『청춘, 위로받지 않을 권리』에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거의가 일화 중심"이라고 말했다. 그의 책은 일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인 비판이라든가 자기반성을 담고 있어 추상적이지 않고 직설적이면서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책을 읽다 보면 다양한 일화 속 각양각색의 청춘들을 만날 수 있다.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청춘, 슬픈 사연을 지닌 청춘, 조로 청춘 등등…. 그리고 그 청춘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깨닫게 된다.

최 교수는 이 책을 모두에게 권하지만 특히 새로 들어오는 새내기 학생들과 지쳐가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을 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학생들은 용기를, 부모들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젊은 청춘들이 패배주의에 익숙해지지 말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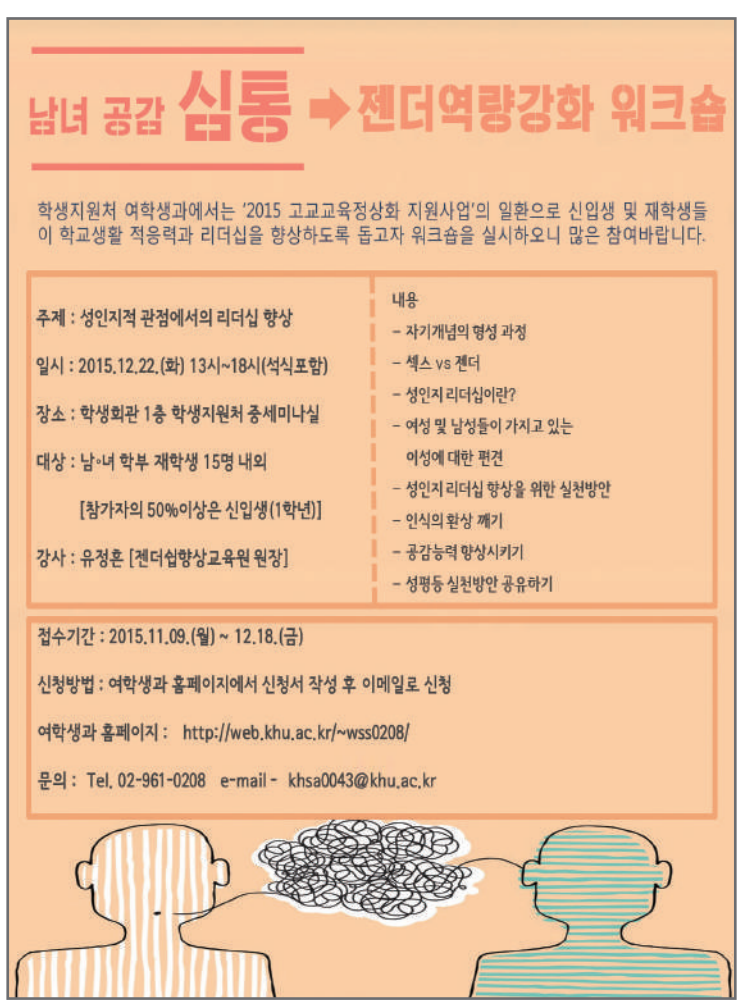
그에게 이 책을 읽을 청춘들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다.

"패배적인 청춘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익숙해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젊고 얼마나 좋아. 또 노인들, 젊은 엄마아빠들은 자신의 청춘시절을 떠올리며 청춘들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춘들이 자지 말고 깨어 있길 바랍니다."

인터뷰 당일 오전 최 교수는 분당의 한 고등학교에서 인문학 강연을 하고 왔다고 한다. 그런데 커다란 시청각교육실에 모인 120명의 학생 중 20명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더란다. 원해서 자신을 불렀을 텐데 뭐하자는 건가 싶었다며 그는 씁쓸해했다. 그는 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대학생 청춘들에게도 고한다. "자지 말고 깨어있자! 어린 캥거루처럼 부모의 품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쬐며 꾸벅꾸벅 졸고 있는 넌 정말 거지같은 청춘이다. 언제까지 졸고 있을 거냐?"

마지막으로 그는 이 시대를 책임질 우리의 젊은 청춘들이 한 가지 더 포기한 게 있다며 "시대정신을 잃어버리고 힘든 취업에 매달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항상 청춘들이 개혁과 혁명의 중심에 있어왔고, 지금의 청춘들도 그래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청춘이라는, '교수님'보다 '선생님'이 좋다는 최 교수는 힘들 때 묵묵히 내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함께 하는 마음을 전한다. 때로는 청춘을 위로하며 때로는 비청춘을 같이 욕해주며 때로는 잘못한 점은 꾸짖기도 하며 말이다. "같이 소주 한 잔 하자구~" 청춘들에게 웃으며 먼저 손 내미는 그는 앞으로 이 책을 읽을 수많은 청춘에게 영원한 형이자 오빠가 되어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중앙도서관 12월 문화프로그램 안내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는 12월 겨울을 맞아 다음과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 경희역사특별전 "Story, 경희의 역사가 되다"

1. 일시 : 2015. 12. 8(화) ~ 12. 11(금)
2.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3. 전시 내용 : 7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경희의 역사 발자취

● 제 4회 세계영화제 : 일본편

영화명	일시	해설	장소
誰も知らない (아무도 모른다) – 감독 : 是枝裕和 – 주연 : 柳楽優弥, 北浦愛, 木村飛影	2015. 12. 7(월) 15:00 ~ 17:40	이지연 교수 (일본어학과)	중앙도서관 AV실 영상세미나실
告白 (고백) – 감독 : 中島哲也 – 주연 : 松たか子, 岡田将生, 木村佳乃	2015. 12. 9(수) 15:00 ~ 17:10		

※ 행사장 수용인원 관계로 참여자는 선착순 40명에 한함.

도서관 재능기부 문화프로그램,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상설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생 개인이나 집단은 공연(음악, 연극 등), 전시회(그림, 사진, 도예 등) 등을 통해 재능을 자유로이 펼쳐 보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 방법 : 이선우(☎ : 031-201-3221, E-mail : asqa@khu.ac.kr)
2. 날짜 : 신청 접수 후 기존 행사 날짜와 조정
3. 행사 내용 : 자유 형식으로 하되 타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 범위 (예 : 연주, 전시)
4. 행사 위치 : 도서관 1층 로비
5. 공연 시간 : 12시 ~ 13시 사이에서 조정

※ 전시회의 경우 상의 후 일정 조정 가능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